

『희망』 문예란에 나타난 ‘희망’의 표상 구축 방식과 문화정치*

— 1950년대 『월간희망』 문예란을 중심으로

임은희**

1. 서론
2. 『월간희망』 문예면의 배치, 매체전략과 ‘희망’의 표상 구축
 - 2-1. ‘문학의 대중화’ 전략, ‘희망’적 계도성
 - 2-1-1. 국내·외 작가소개
 - 2-1-2. 단편소설
 - 2-2. ‘대중의 문화화’ 전략, 교양의 주체로서의 ‘희망’적 재건
 - 2-2-1. 독자문예란
 - 2-2-2. 장편소설
3. 결론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월간희망』잡지(1951-1966)가 문예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정도로 강화를 거듭하면서 대중 독자들과 소통을 늦추지 않았다는 점을 착안하여 『희망』잡지가 재건하고자 한 ‘희망’적 의미가 ‘문예란’을 통해 형상화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문예면의 배치양상은 ‘문학의 대중화’ 전략에 따라 ‘국내외 작가소개란’에서는 작가가 범인과 같이 ‘고난’을 지닌 인물이며 그것을 극복하여 ‘희망’을 표상하는 인물로 소개한다. ‘단편소설란’에서는 무명작가 작품의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 (HY-2015년도)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부교수.

지면할애, 장르의 다양한 세분화, 문학창작의 방법, 형식의 다양화를 통해 '희망'이라는 계도적 표상을 다각적으로 담아내어 '희망'문화정치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대중의 문화화' 전략에 따라 '독자문예란'은 대중이 '희망'적 표상을 담는 창작물을 창조하는 문화인으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 '장편연재소설란'은 『월간희망』이 지속적으로 담론화했던 '성과 사랑'의 문제를 주 서사로 다루고 있으며, 교양의 주체로서 여성의 모랄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담론이 지향했던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가치를 호명함으로써 젠더 위계를 정착시키려는 의도적 목적성이 부각된다. 여기에는 전통 유교적 담론과 정절 이데올로기로 여성들의 '위험한 성'을 통제하는 방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1960년대 국가 재건 프로젝트 하에 핵가족화 되는 과정에서의 젠더정치학과도 연동되는 지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월간희망』의 문예면을 통해 '희망'을 재건하기 위한 문화정치로 규명해볼 수 있다.

『월간희망』은 1950년대 전란의 복구를 '희망'으로 재건하기 위한 문화정치로 '문예란'을 통해 "문학의 대중화" "대중의 문화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어 '대중교양종합지'로서 자리매김된다.

(주제어: 『월간희망』 잡지, 문학의 대중화, 대중의 문화화, 대중교양 종합지, 계도성, 낭만적 사랑, 가부장제로의 '희망'적 귀환, 문화정치)

1. 서론

『월간희망』은 1954년 7월 3주년 기념특집호의 『논설』에 창간 3주년 백만 독자의 성원에 감사하며 부산 피난의 역경 속에서 '희망의 날'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희망'을 발간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 이어 "문화대

한의 건설에 있어서 한 몫을 자담”하며, 문화는 요컨대 ‘생활’이며 ‘교양 있는 생활의 총칭’이라 밝힌다.¹⁾ 1954년 8월 『권두언』에는 한국 전쟁기 피난지 부산에서 발행된 잡지 『월간희망』이 추구했던 그리고 향후 추구할 지향점을 드러낸다. 『월간희망』은 “대중의 호흡과 요구”를 외면하지 않은 채 “희망의 불”이 되어 “문화의 대중화” “대중의 문화화”에 더 한층 찬란한 빛을 가하기에 노력과 불굴의 투지가 있어야 할 것²⁾이라고 밝힌다. 이는 50년대 잡지들이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학을 잡지의 편집 체재 중심에 배치하여, 잡지의 성패를 문학에 둘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용³⁾했던 것처럼 『월간희망』 또한 홍보를 같이 했음을 방증한다. 결국, 『월간희망』이 ‘대중을 문화화한다는 것은 대중을 교양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화교양의 주체적 행위에는 문학을 창작하는 지성적 행위 뿐만 아니라 연애와 사랑의 관계에서의 에티켓을 지키는 행위 즉 성모랄 특히 순결을 지키는 것도 해당된다. ‘장편연재소설’의 소재 대부분이 『월간희망』의 성, 사랑, 여성 담론과 연동되어 낭만적 사랑을 소재로 서술되고 있다. 서술과정에는 대중의 성과 사랑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희망인생안내』란에 내재된 편집진의 의도적 전략과 유사한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중을 계도하기 위한 서술방식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월간희망』은 전란의 복구를 ‘희망’적 삶으로 재건하기 위해 ‘대중교양종합지’로서 나아가겠다는 잡지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획득한다. 이는 50년대 다른 대중지가 잡지를 보다 더 많이 상품화하기 위해 ‘성과 사랑’을 문학 속에 선정적으로 그려 문학을 속물화 내지 통속화로 전락시키는 우려를 낳게 되는데 비

1) 『논설』, 『월간희망』, 1954.7, 24쪽.

2) 『권두언』, 『월간희망』, 1954.8, 23쪽.

3) 이봉범, 『1950년대 잡지 저널리즘과 문학: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412쪽.

해 『월간희망』이 저급화되는 우려를 상쇄시킨다.

1950년대 대중잡지인 『월간희망』은 전시부터 신문을 압도하는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디어공간을 주도한다.⁴⁾ 희망사의 경우 『월간희망』(50,2)으로 시작해 『여성계』(52,7), 『문화세계』(1953,1), 『야담』(1955,7), 『주간희망』(1955,12)으로 확장된다.⁵⁾ 출판자본의 문어발식 확장이 당대 활자미디어 공간을 주도하는 현상⁶⁾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의 취향을 읽어내어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월간희망』이라는 잡지를 주목해야 한다.

1950년대 잡지의 문예면은 문학의 사회 확산과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⁷⁾를 하지만, 한편 이런 편집진의 방향 때문에 단·장편소설의 문학적 가치가 지양되는 한계를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긍정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월간희망』잡지(1951~1966) 문예면의 지면 배치 양상, 즉 작가 소개, 독자문예란, 단·장편소설의 양식, 내용 등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문예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정도로 강화를 거듭하면서 대중 독자들⁸⁾과 소통을 늦추지 않았던 『월간희망』잡지의 ‘희망’정치가 ‘문예란’을 통해 형상화되는 방식에 주목할 것이다. 지면상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의

4)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15-516쪽.

5) 이봉범, 『전후 문학 장의 재편과 잡지 『문학예술』-전반기(1952.8-1956.3)의 매체전략과 문학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 재생산 제도의 구조』, 깊은샘, 2007, 279쪽. 이 논문에서는 『월간희망』의 창간을 1951년 5월로 보고 있으나 조사결과 1951년 7월에 창간되었다.

6) 이봉범, 『전후 문학 장의 재편과 잡지 『문학예술』-전반기(1952.8-1956.3)의 매체전략과 문학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 재생산 제도의 구조』, 깊은샘, 2007, 278-230쪽.

7) 한기형, 『근대문학과 근대문화제도, 그 상관성에 대한 시론적 탐색』, 『상허학보』 19집, 상허학회, 2007, 49-77쪽.

보다 정밀한 내용 분석은 추후 논의로 남겨둘 것이다.

『월간희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전후 인권 담론과의 연관성을 통해 『월간희망』 잡지의 교육적 가치 매김⁸⁾을 하거나, 매체에 실린 조흔파의 소설 분석을 통해 오락잡지로서의 성격을 규명⁹⁾하였다. 또한 『희망』이 주목했던 국민화의 문제를 청년 표상과 관련지어 논의¹⁰⁾하거나, 『월간희망』 초반에 실린 소설을 중심으로 전쟁을 체험 중인 작가가 전선과 후방의 윤리를 모색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¹¹⁾ 등이 있다. 또한 ‘독자문예란’의 시를 통해 한국 대중인의 감성을 규명한¹²⁾ 논의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감안해, 1950년대 『월간희망』 잡지(1951-1958)의 문예면을 고찰할 것이다. 1960년대 『월간희망』 문예란은 초중반의 편집방향을 상실한 채 오히려 대중의 취향에 편승해 ‘명랑소설, 추리소설, 실화소설, 야담소설, 범죄추리소설, 기담소설, 성서이야기 등’ 대중적인 장르에 착안해서만 작품을 싣고 있다. 또한, 당대 전 세계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모았던 ‘아가사 크리스티’, ‘코난 도일’ 번역 작품에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1950년대 『월간희망』의 문예란을 통해 형상화되는 방식(즉, 문예면의 배치 양상, 작가작품, 특히 지면을 보다 더 많이 할애한 소설의 양식, 내용 등)을 고찰하여 문예면

8) 조윤아, 「인권교육의 텍스트 확장을 위한 연구-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47,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115-136쪽.
9) 이은선, 「전쟁기 『희망』과 조흔파의 “명랑소설” 연구」, 『어문론총』 6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295-321쪽.
10) 전지니,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연구」, 『어문론총』 6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217-268쪽.
11) 전지니, 「『희망』 소개 문예면에 나타난 전쟁기의 윤리: 김광주의 『동방이 밝아온다』(1951)와 방인근의 『유엔공주님』(1952)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103-130쪽.
12) 염철, 「『희망』에 나타난 한국전쟁기 한국인의 감성 양상: ‘독자문예란’에 수록된 시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3, 중앙어문학회, 2015, 83-109쪽.

을 강화하면서 대중 독자와 소통을 꾀하며 『희망』잡지가 재건하고자 한 ‘희망’적 의미를 주목할 것이다. 본고의 이러한 논의가 자칫 『희망』잡지에 실린 문예면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것처럼 해석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문학이 결국 작가의 생각에서 놓여나지 않는 창작물이라 할 때 더구나, 잡지에 실리거나 잡지가 선정한 작품들인 경우 그 잡지가 추구하는 편집자들의 지침을 내재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잡지문예면의 지면 배치 양상은 신문과 잡지, 종합지와 문학지 등 잡지가 표방하는 전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각종 매체전략과 그 내포의 변화가 담론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학 부분에도 연동되어 나타난다는 사실 때문이다. 특히 문학이 담론을 반영한 경우라면 잡지의 문예면은 매체전략과 상동한다. 물론, 실제 『월간희망』은 오랜 기간 발간된 종합지 성격의 월간지이므로 담론이나 문예면에 다양한 층위의 목소리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작품이 편집진의 의도에 의한 단정적인 배치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월간희망』의 문예면이 편집진의 의도적인 전략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잡지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한 특징으로 매김될 수 있다. 특히 이 잡지의 이름이자 지향점이기도 한 ‘희망’이 문예면을 통해 표상되는 방식을 규명하는 것은 『희망』이 대중교양종합지로서 1950년대 당대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새롭게 재건하고자 한 문화정치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2. 『월간희망』 문예면의 배치, 매체전략과 ‘희망’의 표상구축

『월간희망』 1954년에는 잡지의 편집 방향, 체제가 여러번 단행되었는데 이런 잡지의 변화는 문예면과 상동하며 변화된다. 1954.4 특대호(10

증면 단행호)에는 150매의 ‘고대 명랑소설선집-〈배비장전〉, 〈이춘풍전〉, 〈옹고집전〉’을 엮어내어 소개한다.¹³⁾ 5월 특집호에는 ‘고전풍자소설선집’에 박연암의 〈양반전〉, 〈호질〉, 〈허생전〉, 〈민옹전〉을 엮어 낸다거나,¹⁴⁾ 6월에는 명랑엽편소설집,¹⁵⁾ 시조사상의 로맨스-명기9명의 에비곡,¹⁶⁾ 7월 3주년 기념특집에는 특별대부록 ‘해외걸작괴기소설선집 〈야의 방문객〉 〈녹색의 숙녀〉 〈지문〉 〈신문〉’을 소개¹⁷⁾하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1955년 11월(혁신 특대호)에는 ‘현역작가 앨범묘’,¹⁸⁾ ‘조흔파씨 공개 문우록’,¹⁹⁾ ‘김연환·이유미가 아버지인 김동인과 이효석을 추억하는 기사²⁰⁾’ 등 문예기사를 더 배치한다. 당대 대중지들이 공통적으로 문학 중심의 편집노선을 지향했듯이²¹⁾ 『월간희망』 또한 편집자의 집필방향이 문예면에 많이 할애되었고, 이는 ‘문학’을 중심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월간희망』은 1950년대 종합지인 『신태양』과 유사하게 순수문

-
- 13) 〈고대 명랑소설 선집〉, 『월간희망』, 1954.4, 105-120쪽.
14) 〈고전풍자소설선집〉, 『월간희망』, 1954.5, 83-98쪽.
15) 〈명랑엽편소설집〉, 『월간희망』, 1954.6, 42-43쪽.
16) 조봉순, 『시조사상의 로맨스-명기9명의 에비곡』, 『월간희망』, 1954.6, 104-111쪽.
17) 〈특별대부록 해외걸작괴기소설선집〉, 『월간희망』, 1954.7, 71-86쪽.
18) 『현역작가 앨범묘』, 『월간희망』, 1955.11, 108-113쪽. 모윤숙, 장덕조, 최정희, 김팔봉, 박영준, 정비석 등 문인들의 사진에 얽힌 작가들의 일상적인 추억담을 소개하고 있다.
19) 『조흔파씨 공개문우록』, 『월간희망』, 1955.11, 117-121쪽. 조흔파씨의 문우인 곽하신, 구상, 김승, 박연희, 양명문, 임금재, 조영암 등의 추억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20) 김연환·이유미, 『아버지를 고향』, 『월간희망』, 1955.11, 108-113쪽. 김연환은 고김동인이 커피 나무를 사랑하셨고, 잠자리까지 봐주신 자상한 아버지였다. 일제말 한글을 가르쳐주셨고, 유우머가 풍부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유미는 고이효석이 꽃과 음악을 사랑하고, 다정다감하며 계절마다 다양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했고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즐겨 부른 추억들을 언급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작가를 소개하고 있다.
21)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15-516쪽.

학과 대중문학 모두를 아우르는 문학 지면을 구성하고 있다. 1950년대 순수문학만을 고집하며 대중문학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순수문학종합지인 『사상계』나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오락지”를 표방하며 ‘명랑’이라는 정서로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낸 『명랑』, 『아리랑』²²⁾과는 좀 더 다른 방향을 노정한다. 이는 『월간희망』이 표방하는 ‘희망’이라는 슬로건이 대중의 긍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희망’적인 결과물을 이뤄내기 위한 극복의지를 설득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나 비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명랑’이라는 정서로 웃고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시사적이거나, 교양적인 기사의 범위로 최대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성과 사랑’이라는 소재 활용을 살펴보면, 『명랑』에서는 ‘성과 사랑’이 웃음거리의 소재로 활용되는데 비해 『월간희망』에서는 희망적 가정을 구성하기 위한 계도적 소재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월간희망』의 문예란을 살펴보면 창작 단편 소설(한 회당: 2-3편), 장편연재소설(한 회당: 2-4편), 시, 수필, 해외문학(작품번역, 작가소개), 작가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면적으로는 문예지 편집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1955년 4월 발행인인 김종완이 『독자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론만의 잡지가 아니며 그렇다고 사화(史話)나 야담만을 편중하는 읽을거리도 아니며 또 그렇다고 시나 수필이나 소설만을 엮어놓는 문예지도 아니며 그렇다고 무계획 무질서한 채로 방담(放談)과 속설(俗說)의 잡동산이를 함부로 택하지도 않습니다. 『희망』은 어디까지나 건전한 아속겸비(雅俗兼備)의 희망지가 되겠다”²³⁾는 잡지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 따라서 『월간희망』은 여타의 문예지와는 달리 대중을 ‘교양화’, 문

22) 이선미, 『명랑소설의 장르인식, ‘오락’과 ‘(미국)문명’의 접점-1950년대 중/후반 『아리랑』의 명랑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61쪽.

23) 김종완, 『독자에게 드리는 말씀』, 『월간희망』, 1955.4, 37쪽.

학을 ‘대중화’하기 위한 중도적 편집방향을 취한다. 문학을 ‘대중화’하는 전략에는 국내외 작가소개란과 단편소설란을 통해, 대중을 ‘문화화’ 즉 교양화하는 전략에는 독자문예란과 장편연재소설란을 활용하여 ‘희망’적 사회 재건을 위해 대중을 계도하려는 집필 의도를 지속적으로 노정한다.

2-1. ‘문학의 대중화’ 전략, ‘희망’적 계도성

2-1-1. 국내·외 작가소개

『월간희망』잡지에는 국내·외 작가에 대한 소개를 꾸준히 싣고 있다. 이는 1950년대 여타의 다른 대중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월간희망』에 실린 작가 소개 방식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일관된 서술전략을 보여준다. 작가를 독자들처럼 ‘고난’을 지니고 있는 범인으로, 그 고난을 극복한 ‘희망’ 전달자로 소개하려는 서술방식이다. 1952년 7월, 『세계거성들의 애정사-디스레리편』에서는 그의 작품 성향이나 작품소개보다는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12세 연상 부인과의 사랑을 주목한다. 이처럼 대중의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12세 연상의 부인에 주목했다는 점에서는 여타 다른 대중잡지의 성향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좀 더 특징적인 것은 작가의 삶이 희망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거성을 만든 작품 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부간의 헌신적 사랑’에 있음을 강조한다²⁴⁾는 점이다. 여기에 대중을 ‘희망’적 삶으로 계도하려는 『월간희망』잡지의 전략을 추출할 수 있다. 1952년 9월, 이봉래의 『세계 문호 지드와 와일드의

24) 『세계거성들의 애정사-디스레리의 순애』, 『월간희망』, 1952.6, 62-66쪽.

남색상-소설 <고리동>을 중심으로』에서도 세계적인 문호 앙드레 지드와 그의 작품 『고리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작가 작품론이 아닌 그의 문학에 나타난 '남색상'이라는 변태적 성향을 분석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문호에게도 '남색상'이라는 바로 '범인과 같은 인간적 고민과 본능이 있다'는 점이며 이것을 작품으로 승화한 작가라는 점이다. 때문에 그의 작품이 더욱더 위대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²⁵⁾ 1955년 5월, 김일엽의 『애증의 경애를 벗어나 비련의 여시인 눈물의 수기』 또한 시인으로서의 작품의 가치보다는 비련의 삶을 종교적으로 승화하여 한없는 순례의 길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 '희망'의 표상인 인간 김일엽을 그리고 있다.²⁶⁾ 이 호에 실린 최정희의 『비련의 여시인 김일엽 여사를 찾아』에는 실제 불문에 돌아서 새로운 삶인 순례의 길을 겪는 김일엽을 최정희와 『희망』 사장 김종원이 김일엽이 머문 수덕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나눈 대화를 에세이 형식으로 신고 있다.²⁷⁾ 이는 '절망'적 삶을 극복하고 '희망'적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을 『월간희망』잡지가 함께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준다. 1955년 8월,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여류작가 '펼벅과 그 어머니』에서도 펼벅의 위대함은 3번의 노벨문학상을 받았거나 문학적인 가치보다는 미국인이었지만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한 어머니의 고난극복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딸로 장애아를 둔 펼벅 또한 자신의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한 '희망'적 인간임을 강조한다.²⁸⁾ 이중에서도 10회 이상에 걸쳐 연

25) 이봉래, 『세계 문호 지드와 와일드의 남색상-소설 <고리동>을 중심으로』, 『월간희망』, 1952.9, 66-68쪽.

26) 김일엽, 『애증의 경애를 벗어나 비련의 여시인 눈물의 수기』, 『월간희망』, 1955.5, 42-54쪽.

27) 최정희, 『비련의 여시인 김일엽 여사를 찾아』, 『월간희망』, 1955.5, 46-49쪽. 김일엽이 머문 수덕사를 최정희와 김종원, 대양출판사 김익달이 동행하여 방문하면서 나눈 대화중심의 가벼운 에세이.

재된 한하운의 『나의 슬픈 반생기』²⁹⁾는 시인으로서 대중에게 감동을 준 한하운보다는 ‘몽둥병 때문에 청춘을 매장하고 피눈물 나는 인생의 길에서 표면히 삶을 극복해 낸 인간 승리자’로서의 한하운을 그리고 있다. 자신의 고통스런 삶을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시로 승화시킨 ‘인간’ 한하운이 바로 ‘희망’의 전달자이다.

이상 『월간희망』 작가소개란의 서술방식이 작가, 작품에 초점을 둔 서술이 아니라, 본인의 고통스러운 시련을 ‘희망’적인 삶으로 이끌어낸 인간승리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사회 명성만큼이나 특별한 인물이 아닌 심지어는 우리보다도 더한 고통을 겪어낸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들이다. 이를 통해 『월간희망』잡지가 문예란을 통해 구축하고자 한 ‘희망’문화정치적 전략의 일면이 드러난다.

28) 조능식,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여류작가 ‘필벅’과 그 어머니』, 『월간희망』, 1955.8, 98-101쪽. 미국인이지만 주로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그녀의 부모가 중국에서 가뭄을 의연하게 겪어냈던 일, 백인학살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낸 필벅 어머니의 희망적 에피소드, 장애아를 두었지만 더욱더 겸손하게 극복해낸 필벅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을 ‘희망’으로 이끌어낸 두 여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 서술되고 있다.

29) 한하운, 『나의 슬픈 반생기』, 『월간희망』, 1955.5-1957.1.

2-1-2. 단편소설

『월간희망』에 실린 단편소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간희망』에 실린 단편소설³⁰⁾

년	월	〈단편소설〉 작품명	
1952	6	김마리아,〈나의 반생기〉,최진웅,〈봄바다〉,김송,〈지환〉	
	11	곽하신,〈어둠길〉, 김광주,〈흰 꽃을 가슴에 안고〉	
	1953	1	조훈파,〈가정기상도〉,황순원,〈참외〉,이선구, 〈홍국백국〉
2		향초인,〈밀항의 기〉,장덕조,〈풍설〉	
7		윤금숙,〈아들의 일기〉, 최요안,〈인간유정〉	
9		조훈파,〈동상이몽〉,정하신,〈전환의 역정〉	
1954	11	조훈파,〈연애무용전〉,김송,〈분노의 환상〉	
	1	유주현,〈한전무〉	
	2	조훈파,〈봄은 도처에〉,조경식,〈철도폐업〉	
	3	조훈파,〈연애복습〉	
	4	조훈파,〈유담뽀사랑〉,허동열, 〈배반자〉,이방홍,〈까불이〉	
	6	김용애,〈명랑〉,봉순,〈애연곡〉	
	8	김광주,〈한강반의 황혼〉	
	10	최인환,〈출품전후〉	
	11	조경휘,〈눈〉,조훈파,〈부부도방정식〉,기명호,〈점순이의 애난〉	
	12	조희준,〈반지〉,최진웅,〈서글픈 민족의 청춘〉	
	1955	2	김성윤,〈난경〉
3		조훈파,〈여인천세학〉	
5		최정휘,〈탄금에 서〉	
6		최진웅,〈애정청산〉	
12		최인욱,〈축복〉,박연희,〈달밤〉	
1956		6	허문영,〈결혼저주마〉,유은종,〈직업〉,김광주, 〈청산리의 여명〉
	7	이봉구,〈시인박인환〉	
	8	유우고,〈여우 조미령〉,백호,〈이영민의 비극 상〉,서호,〈홍범자〉,허남민,〈결혼고오스톱〉,이병철,〈녹색의 구두〉,박영환,〈양말〉	
	9	김남희,〈실격자〉,서호,〈태풍1화 상〉,백호, 〈이영민의 비극 하〉,	
	10	서호, 〈태풍1화 하〉, 허문영, 〈붉은술잔〉,	
	11	서호,〈납을 먹는 갑충〉,유호,〈밥10시〉,	
	12	유우고, 〈마라톤왕손기정〉,서호,〈붉은명주손수건〉,조훈파,〈크리쓰마스이브〉	
	1957	1	최요안,유호,조훈파,〈노랑나비노랑꽃에〉
		3	정비석,〈질투삼화〉,박연희,〈달이 떴던 날 밤〉
		4	유호,〈장미꽃인생〉,정비석,〈모의연애〉,유우고,〈상처투성이의 영광〉

	5	정비석,〈봄의노래〉,정한숙,〈정열의 피안〉,방인근,〈마음의 감옥〉,박진일,〈이유없는 반항〉,최요안,〈춘풍을 타고〉
	6	손소희,〈목련이 피는 무렵〉,정비석,〈K부인전답서〉
	7	천세옥,〈남가일몽〉,임옥인,〈아내의 위치〉,박용구,〈엄관의 처〉,서호,〈전송가〉
	9	정비석,〈사의 유혹〉,안동민,〈아름다운 인연〉
	10	박영준,〈아름다운 도둑〉,유호,〈히스테리 최고〉
	11	김송,〈행운〉,김동민,〈돌격용장 김석원〉
	12	정비석,〈호접몽〉,안수길,〈홍엽〉,최인옥,〈소녀상〉,김장수,〈이발사의 딸〉
1958	1	오상원,〈또 하나의 경우〉,최진웅,〈이별의 곡〉
	2	손소희,〈기리기〉,김장수,〈망치기〉,류주현,〈여건〉,김희석,〈화병〉
	3	이명운,〈사랑의 연옥〉,신석 역,〈서한역의〉,김송,〈우룡: 120매전재〉
	5	박경리,〈5월의 찬가〉,손창섭,〈인간계루〉
	6	박은인,〈모녀상〉,김장수,〈흐르지 않는 강〉
1965	3	석인화,〈검은 이리를 잡아라〉,우기송,〈마지막 사진〉,송영,〈사모님 조심하세요〉,진영하,〈정탐〉
	4	송영,〈만우절 소동〉,임우영,〈별거벗은 반역자〉,진영하,〈불량배〉
	5	임우영,〈나는 알고 있다〉,박성출,〈신천도 올었다오〉,수랑,〈운명의 인〉,이성,〈질투〉
	6	김영도,〈또 다른 길〉,구파,〈마지막 칼날〉
	7	정태산,〈바다의 재왕 아페리〉,송일야,〈창공을 찌른다 1〉
	8	송일야,〈창공을 찌른다 2〉
	9	이우춘,〈애정의 자세〉,황보승,〈제갈량의 신기묘산〉
	11	진영하,〈분홍치마〉
	12	최혜숙,〈사랑과 미움〉,황보인,〈역지이인이 된 소금장수〉,한천석,〈올드미스〉,김광조,〈장미의 고백〉
1966	1	최삼,〈청파지붕 밑에 살인사건〉
	2	최혜숙,〈사랑과 미움이 남긴 것〉,미상,〈아름다운 창녀〉,미상,〈일하는 기쁨을 맛본 소년〉,미상,〈죽음의 모래밭〉
	4	박에스터,〈고독한 대화〉,조남수,〈그 여인을 찾아라〉,진영하,〈어둠 속에서〉,황보승,〈지마왕과 세 여인〉,석태균,〈현장으로 돌아온 살인마〉

〈상기목록은 추후 『월간희망』잡지의 발견에 따라 변경가능〉

이상 〈표〉를 참고하여 『월간희망』잡지에 실린 단편 작품들의 작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0) 『희망』은 2년에 걸쳐 15명(김은하, 김연숙, 김현주, 공임순, 서은영, 장미영, 최미진, 최배은, 최윤희, 임은희, 한영현, 홍순애 등)의 선생님들이 한 달에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해 독해된 것이다. 여기 실린 작품 자료들 또한 함께 잡지독해를 통해 찾아낸 것이며, 최배은 선생님께서 마무리 정리를 해 준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주말을 반납하며 『희망』 스튜디오에 매진해 준 여러 선생님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린다.

강소천, 기명호, 김남희, 김성윤, 김광주, 김동민, 김송, 김성윤, 김용애, 김용성, 김이석, 김장수, 김희석, 박경리, 박연희, 박영준, 박영환, 박은인, 박용구, 백호, 석인화, 손소희, 손창섭, 송영, 서호, 안동민, 안수길, 이방홍, 이봉구, 이병철, 이선구, 이명은, 임옥인, 오상원, 우기송, 유은종, 유주현, 유희, 유우고, 윤금숙, 장덕조, 정복선, 정비석, 정련휘, 조정식, 조경휘, 조훈파, 조휘준, 진영하, 최인옥, 최인환, 최요안, 최정위, 최정희, 천세옥, 하동열, 최인옥, 최진웅, 허남민, 허문영, 한정동, 황순원, 향초인 등

이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월간희망』에 단편을 실었던 작가는 100여 명에 이르는데 2편 이상을 게재한 작가(김광주, 김송, 유우명, 김정수, 박연희, 정비석, 조훈파, 서호 등)가 10여명 에 불가하다. 또한, 이는 ‘문예 공모’를 통한 새로운 작가배출도 있었지만 기성 작가를 벗어나 무명작가의 작품도 보다 많이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다양한 문인이 이 잡지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편집진의 노력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또한, 『월간희망』은 문학창작의 방법이나 문학 형식의 다양화를 시도한다. 〈미쓰 정〉³¹⁾은 화가가 글을 쓰고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창작방법의 새로움을 보인다. 〈붉은 명주손수건〉³²⁾은 그림과 문자가 컷으로 구분되어 배열하는 그림탐정소설이라는 형식의 새로움을 선보인다. 또한, 여러 명의 소설가가 소설의 각 단계를 나눠 서술하는 연작명랑소설, 연작탐정소설도 등장한다. 연작명랑소설〈노랑나비노랑꽃에〉³³⁾는 3인의 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연작탐정소설〈그림자〉는 발단편은 도일, 전개편은 허문영, 해결편은 박연희가 담당하여 완성한다.³⁴⁾ 이처럼 소설을 3인이 함께 창작한다거나 소설가와 화가가 서로 바뀌서 창작, 한편을 여러 작가가 공동집필하는 등 문학형식, 창작방법

31) 이순재, 〈미쓰 정〉, 『월간희망』, 1955.11, 130-131쪽.

32) 서호, 〈붉은 명주손수건〉, 『월간희망』, 1956.12, 123-128쪽.

33) 최요한·유희·조훈파, 〈노랑나비노랑꽃에〉, 『월간희망』, 1957.1, 19-21쪽.

34) 도일·허문영·박연희, 〈그림자〉, 『월간희망』, 1957.6, 96-99쪽.

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학의 대중화를 시도하며 대중지의 지평을 확대한다.

또한, 『월간희망』에는 번역물 보다는 창작물에 더 많은 비중이 실려 있다. 번역물은 특히 유럽과 미국의 작품에 편중되어 있고, 번역물의 경우에는 ‘탐정소설, 애정소설, 괴기소설’에 치우쳐있다. 이는 당대 오락성을 선호하는 대중의 취향을 고려한 지면배치로 문학을 대중화하기 위한 기획으로 대중지로서의 잡지의 성향 또한 견지해나간다.

실제 『월간희망』에서 문학의 구분은 매우 세분화 되어 있어서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이름을 명명한다. 소설의 경우 ‘단편소설, 장편소설, 연재소설’로만 명명되어 게재되었던 것이 1954년부터는 ‘엽편소설, 명랑소설, 탐정소설, 역사소설’로 좀 더 새로운 장르가 등장한다. 1956년 이후에는 ‘애정소설, 실명소설, 그림명랑소설, 탐정그림소설, 색채명랑소설, 3인연작 명랑소설, 영화소설, 순애소설, 순정소설, 시대소설, 애육소설, 비련소설, 추리소설, 야담소설’ 등 더욱더 세분화되어 구체적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대중소설의 장르적 분화는 1950년대 대중지의 특징으로서 전문적·직업적 대중소설작가를 탄생시키고 대중잡지가 신문과 또 다른 차원에서 대중소설이 증식되는 매체적 거점이 된다.³⁵⁾ 그런데, 『월간희망』이 지속적인 문예공모를 하거나, 다수의 단편을 실었음에 비해, 다른 대중지보다 전문적 대중소설작가 배출을 2명정도밖에 하지 못했다는 점과 단편작품들이 덜 대중화되었다는 점, 단편소설의 양이 폰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등은 문학을 대중화하기에 앞서 문예단편소설모집에서 드러나듯 ‘희망’이라는 표상을 다각적인 소설에 담아내려는 편집진의 의도적 전략이 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인 것으로

35) 이봉범, 『1950년대 잡지 저널리즘과 문학-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432-433쪽.

간주된다. 이는 다른 대중지들이 대중의 취향에 편승해 폭력성과 선정성을 과도하게 드러냄으로써 소설의 상품성을 촉진하는 유력한 발판으로 삼아 문학의 질을 저하시켰다는 비난의 중심에 서는 반면, 『희망』이 오락지보다는 종합교양지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도착적 애육문제, 성행위, 근친의 문제를 다룬 애정소설, 순정소설, 순애소설, 애육소설, 비련소설 등이 지나치게 선정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한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실명소설’을 통해 ‘희망’의 표상은 보다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월간희망』에 실린 실명소설은 <시인 박인환>³⁶⁾ <여우 조미령>³⁷⁾ <야구선수 이영민>³⁸⁾ <배우 복혜숙>³⁹⁾ <마라톤 선수 손기정>⁴⁰⁾ 등이다. 물론 50년대 다른 대중지에서도 실명소설은 등장한다. 그러나, 실명소설을 통해 형상화된 실존인물의 삶이 보다 더 허구적으로 형상화한 극적 지점을 주목할 때 『희망』만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여기에는 『희망』이 의도하는 전략적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화적인 분야에서 나라를 빛낸 최고의 실존인물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마라톤 선수 손기정>에서는 “어린 옛장수로부터 세계마라톤 왕자가 되기까지의 피눈물 맺힌 투쟁의 역정!”⁴¹⁾을 보다 강조하여 소설화하고 있다. 복혜숙은 “황무지 같은 연예계를 개척하기 위하여 싸워 온 복혜숙 여사의 예도생활 40년사”⁴²⁾를 중심으로 서사화하고 있다. 이 두 작품에서 실

36) 이봉구, <시인 박인환>, 『월간희망』, 1956.7, 124-133쪽.

37) 유우고, <여우 조미령>, 『월간희망』, 1956.8, 86-93쪽.

38) 백호, <이영민의 비극 상>, 『월간희망』, 1956.8, 112-123쪽; 백호, <이영민의 비극 하>, 『월간희망』, 1956.9, 136-145쪽.

39) 유우고, <여배우 복혜숙>, 『월간희망』, 1956.10, 58-67쪽.

40) 유우고, <마라톤왕손기정>, 『월간희망』, 1956.12, 98-108쪽.

41) 유우고, <마라톤왕손기정>, 『월간희망』, 1956.12, 98쪽.

42) 유우고, <여배우 복혜숙>, 『월간희망』, 1956.10, 59쪽.

존인물이었던 이들을 현실보다 더 극적으로 형상화한 지점이 바로 자신의 꿈 즉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물 흘릴 정도의 투쟁’을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 재건하고자 한 ‘희망’적 삶의 모습인 것이다. 이처럼, 『희망』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학은 소설의 형식을 통해 문학의 외연을 더 확장하여 대중과 보다 더 가까이 호흡하고자 한 전략 뿐만 아니라 대중을 계도하여 전쟁으로 황폐화 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희망’적 정치전략 또한 간과될 수 없다. 특히, 〈야구선수 이영민〉의 경우 1.2부로 소설화하고 있는데, 이영민의 실제 삶과 비교할 때 『월간희망』에서 상당히 극화된다. 실존인인 이영민은 경성야구장 제1호 홈런의 주인공이다. 그는 전국고교 야구를 망라하여 타율을 가장 많이 올린 선수에게 이영민 타격상이 수여될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린다. 일본 야구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미국 프로야구단과 경기에도 출전하여 미국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 적이 있을 만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물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 그는 성적인 타락과 방탕을 일삼게 되고 가정을 홀대한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아버지의 삶을 증오한 셋째아들은 일탈하게 된다. 결국, 이영민은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 위해 강도로 위장한 아들 친구의 총에 맞아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이러한 이영민의 비극적인 실화는 『월간희망』에서 상당히 다르게 허구화된다. 〈야구선수 이영민〉이란 작품을 시작하기 전 작가는 “그는 운동선수로서는 뛰어난 행운아였다. 그러나 가정적으로는 몹시도 불행한 사람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8-9년 전에 그의 전처(신봉애: 가명)는 오늘날의 소위 자유부인 못지않는 염색행각을 했다. 이것이 가정비극의 서막이었으며 참담한 결말을 짓게 된 동기가 되었다.”⁴³⁾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이 소설은 이영민의 전처 신봉애를 중심으로 서술된다는

43) 백호, 〈이영민의 비극 상〉, 『월간희망』, 1956.8, 112-113쪽.

의도를 밝힌다. 이영민의 부인 신씨의 방탕한 삶이 주요서사로 그려지고 있다. 허영과 사치가 심한 신봉애는 자식3명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버리고 유부남인 Y와 바람이 난다. 결국 그녀는 농락만 당하고 파멸에 이르는 과정이 중심서사이다. 이처럼, 성적 타락이 가정을 파탄하고 국가기강까지 흔드는 주범이라는 것은 『월간희망』이 담론을 통해서나 장편연재소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제이다. ‘희망’적 삶은 허영과 사치를 금하며, 성모랄 즉 정조관념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단편소설을 통해서도 대중을 향한 윤리적 계도성을 견지한 채 ‘희망’문화정치를 지속적으로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2-2. ‘대중의 문화화’ 전략, 교양의 주체로서의 ‘희망’적 재건

2-2-1. 독자문예란

『월간희망』 또한 독자문예란 즉 『문예싸롱-독자 폐자.』를 만들어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시·수필·풍트·소설·소화(笑話)·만담(漫談) 등 다양한 작품 공모를 유도한다. 이에 선정된 작품들을 다음 호에 실어주고 선외가작(選外佳作)에 해당하는 작품의 이름 또한 밝힌다. 특히, 『편집후기』를 보면 편집부에서 독자문예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많은 독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갱신을 보여준다.

1952년9월 『편집후기』에 “전란의 일체잔재(一切殘滓)를 초연히 넘어서 애독자들의 열렬한 편달(鞭達)과 (문예싸롱)투고의 끊임없는 열의에 편자는 다만 머리 숙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면이 허락할 수 있는 한

모든 작품들을 실을 수 있도록 지면을 넓힐 것을 약속한다.”⁴⁴⁾라는 언급처럼 독자들의 참여가 지대했음을 보여준다. 1952년 12월 『편집후기』에 “특히 독자들에게 부탁할 것은 지면이 허락하는 한 많은 독자들의 작품을 게재(掲載)하고자 시·수필·콩트·소설·소화(笑話)·만담(漫談) 등”⁴⁵⁾을 널리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투고를 부탁한다고 밝힌다. 이처럼 ‘독자 싸롱’란을 통해 다양한 대중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문학을 창작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함으로써 매체가 문학의 지평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953년 1월에는 “치열한 전화 속에서 일체의 고난도 달게 감수하면서 꾸준한 작품을 보내주시는 그 열렬한 지고의 인간성에 대하여 머리를 숙일뿐이다. 가능한 한 제한의 시슬을 풀어 독자들의 작품을 보다 많이 게재할 것을 약속”⁴⁶⁾하여 둔다. 이처럼 문학창작에 더 많은 독자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대중을 문화화하는데 적극적이다.

1952년 9월부터 제1회 ‘대중문예작품’을 모집하는데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의 단편소설’이 모집 요건이다. 이러한 모집이 1955년 12월 『문예작품현상 대모집』에는 ‘명랑소설, 탐정소설, 엽편소설, 실화미담, 나의 생활공개, 만화 등’ 다양한 장르로 확산된다. 이 모집광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월간희망』이 대중을 문화화하는 창작요건에 혼란한 당대 질서를 재건하고자 하는 『희망』의 전략적 의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공모 내용에 ‘명랑소설은 읽는 사람에게 희망, 광명, 또는 미소, 폭소를 주는 작품이 되 어디까지나 내용이 건전하고 고상할 것, 탐정소설은 탐정소설인 범위 안에서 어떠한 소재라도 좋으나 지나친 엽기나 범죄를 조장할 염려가 있는 내용은 삼갈 것, 될수록 짧은 분량으로 큰 감격과 충격을

44) 『편집후기』, 『월간희망』, 1952.9, 82쪽.

45) 『편집후기』, 『월간희망』, 1952.12, 82쪽.

46) 『편집후기』, 『월간희망』, 1953.1, 90쪽.

주는 내용이되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실화 미담은 한 군데 숨겨져 있기에 너무나 사회성이 큰 실화와 감격 깊은 미담을 기술할 것, 나의 생활공개는 특히 전쟁미망인이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다고 할만치 어려운 살림살이를 어떻게 이뤄나가고 있는가의 공개록, 고심담, 만화는 보는 사람들에게 큰 감명과 웃음을 주는 만화로 내용과 형식과 체제 등에 아무런 제한도 없다는 내용을 밝힌다. 이상 각 장르의 공모 내용을 살펴보면 『희망』이 대중을 향해 구축하고자 했던 ‘희망’은 ‘광명, 명랑, 건전, 고상, 사회 안정, 생활 안에서 감격, 미담, 고난극복, 감명과 웃음’으로 표상화된다. 이상 문예모집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바로 다음호에 실어준다. 1956,6월 〈결혼저주마〉(현상문예당선작탐정소설),⁴⁷⁾ 〈직업〉(현상문예당선작 엮편소설), 1956,8월 〈결혼고오스톱〉(현상문예입선, 명랑소설), 〈녹색의 구두〉(현상문예입선, 탐정소설),⁴⁸⁾ 〈양말〉(현상문예입선, 엮편소설), 1956,9월 〈실격자〉(현상문예엮편소설)등이 있다. 이 중 엮편소설로 입선한 세 작품을 살펴보면 생활 안에서 ‘희망’을 표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업〉⁴⁹⁾은 전기수리공인 아버지가 전기에 소질이 있고 관심있는 아들만은 다른 직업을 갖기를 희망한다. 이 직업은 높은 곳에서 추락할 위험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직업을 바꿔주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전봇대 공사 중 떨어져 죽게 된다. 결국 아버지가 모아뒀던 돈은 장례식 비용으로 쓰게 된다는 쓸쓸한 이야기이지만 부성애가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 시대의 ‘부성상’을 보여준다. 〈실격자〉⁵⁰⁾는 군인시절 양공주와의 관계를 가졌던 진수가 군대를 제대하면

47) 허문영, 『결혼저주마』, 『월간희망』, 1956.6, 142-151쪽.

48) 이병철, 『녹색의 구두』, 『월간희망』, 1956.8, 136-144쪽.

49) 유은중, 『직업』, 『월간희망』, 1956.6, 159-161쪽.

50) 김남희, 『실격자』, 『월간희망』, 1956.9, 124-134쪽.

서 양공주인 난희를 아내로 맡겼다며 찾아간다. 그러나 양공주 난희는 여기를 벗어나 평범한 아내로 살아가기는 어렵다며, 당신은 군인을 제대했기에 실격했다며 선물을 주면서 헤어지자고 한다. 양공주에게 거절당한 진수이지만, 한 여성을 향해 순결한 사랑을 한 남성의 진실성이 ‘희망’임을 부각한다. 『양말』⁵¹⁾은 사라진 양말 때문에 친구를 도둑으로 오해하지만 결국 딸이 축축해진 양말을 따뜻하게 말리느라 가져갔었다는 말을 듣고 잠시나마 친구를 오해했던 것을 미안해하는 이야기다. ‘양말’을 훔쳐갈 정도의 열악한 현실이지만 친구간의 진실한 우애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명랑소설인〈결혼고오스톱〉⁵²⁾은 완고한 부모님 때문에 대학진학도 포기한 진주는 결혼만큼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겠다며 사촌누나인 윤신자 집으로 상경한다. 윤신자는 진주에게 집에서 접쳐둔 남자를 소개하게 되고, 진주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그 남자와 자유연애를 한다. 연애를 하면서 진주는 그의 교양있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다. 그런데, 자신이 연애한 남자가 집에서 정해준 정혼자라는 사실을 알게됨으로써 웃음을 자아낸다. 여기에는 연애대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낭만적 사랑의 긍정성을 보여주지만, 보수적인 가부장제의 자장 안에서만이 ‘명랑’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지향하는 성모랄인 전통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처럼, 『월간희망』은 독자문예란을 통해 대중을 문화화하는 과정에서도 ‘희망’정치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과 소통하는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예 희망』란을 통해 독자가 보낸 시, 수필을 선별해서 실었는데 『독자문단』, 『독자시』, 『독자문예』로 이름만 바뀐 채 매호 독자의 수필, 시 등을 3-4편씩 게재한다. 1954년에는 『미담실화모집』, 55년 7월 부

51) 박영환, 『양말』, 『월간희망』, 1956.8, 154-155쪽.

52) 허남민, 『결혼고오스톱』, 『월간희망』, 1956.8, 124-134쪽.

터는 『국군장병란』을 만들어 ‘문학’으로 국군과의 소통을 『직장문예란』에서는 산업은행, 국회사무처편 등 릴레이 방식으로 그 직장을 소개하며 직장인이 공모한 수필, 시, 콩트 등을 신는다. 1957년7월에는 <글짓기 현상 퀴즈>란을 만들어 독자와의 문학적 소통을 이어나간다. ‘독자문예란’은 대중들에게 『희망』이 구축한 ‘희망’적 전략을 문화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2-2-2. 장편소설

『월간희망』에 실린 장편연재소설은 기성작가로 구성되어 있다. 미완작품 외 몇 작품을 제외⁵³⁾한 대부분의 작품이 출판되었다. 이는 『월간희망』잡지가 1950년대 대중의 취향을 선도하며 대중교양종합지로서 대중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입증한다. 장편연재소설은 『월간희망』 창간호부터 지속적으로 2~4편이상이 실려 문예면의 지면을 할애하였고 단편소설의 분량이 실제 순수문예의 단편소설과 콩트의 중간 정도로 상당히 짧은 분량으로 쓰여 매회 3편정도 실린다 하더라도 지면의 할애 면에서는 장편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특히, 『월간희망』의 문예면은 장편연재소설의 장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1954년의 경우에는 <여인의 노래>, <월야의 창>, <어찌하오리까?>, <비가온다>의 4편이 한호에 함께 실릴 정도이다. 『월간희망』에 실린 장편연재소설은 다음과 같다.

53) 미완작품인 장덕조의 <비가 온다>, 박연희의 <청색회관> 외에 김말봉의 <파도에 부치는 노래>, 곽하신의 <여인의 노래>, 방인근의 <어찌하오리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장편연재소설은 책으로 출판된다. 최정희의 <광활한 천지>는 『끝없는 낭만』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다.

『월간희망』에 실린 장편연재소설

작가	장편연재소설 작품명	실린시기(년/월)
김말봉	〈파도에 부치는 노래〉	1951,8-1953,1
이무영	〈사랑의 화첩〉	1952,8-1953,9
박연희	〈청색회관〉	1953,7-1954,10(미완)
윤백남	〈천추의 한〉	1953,7-1954,6
곽하신	〈여인의 노래〉	1953,11-1955,3
정비석	〈월야의 창〉	1954,4-1955,7
방인근	〈어찌하오리까?〉	1954,8-1955,12
장덕조	〈비가 온다〉	1954,9-1955,12(미완)
박계주	〈지옥의 시〉	1955,8-1957,3
박계주	〈나혼자만이〉	1955,9-1957,3
최정희	〈광활한 천지〉	1956,1-1957,3
조훈파	〈외룡선생 상경기〉	1955,11-1956,10
조훈파	〈흐르는 성좌〉	1957,1-1957,11
김말봉	〈길〉	1957,4-1958,1
김동리	〈풍기〉	1958,5,6(미완)

이상의 〈표〉에서 『월간희망』장편연재소설은 명랑소설인 〈외룡선생 상경기〉, 역사소설인 〈천추의 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낭만적 사랑’을 주 서사로 하고 있다. 특히 ‘성과 사랑’이 중심소재이며 여성의 성모랄이 결혼으로 귀결되는 동인이며 희망적 가정을 지켜내는 중요한 인자임을 강조한다. ‘성과 사랑, 여성’의 문제는 『월간희망』이 지속적으로 담론화 하였고, 낭만적 사랑을 주서사로 한 장편연재소설에는 『월간희망』이 담론화 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재현하여 현실과 허구가 혼재된 채 그려지고 있다. 이는 비록 허구로 형상화되었지만 현실적 문제임을 상기시킴으로써 당대 대중의 욕망을 재생산, 재의미화함으로써 대중을 향한 계몽적 의도가 보다 더 부각된다.

『월간희망』잡지는 교양종합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사랑, 여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론화한다. 『월간희망』 ‘성, 사랑, 여성’담론에서 주목

할 것은 지속적으로 혼전 순결, 여성의 사치와 허영, 정조, 간통의 문제,⁵⁴⁾ 성모랄이 해이한 여성들인 미망인, 아프레걸, 전후파, 유한마담, 양공주, 윤락녀, 기생들의 비극성⁵⁵⁾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1957년 특집으로는 ‘결혼, 부부, 가정’의 행복을 중점적으로 다룬다.⁵⁶⁾ 이 담론에는 현모, 양처, 인내하는 삶의 가치, 여성의 지성적 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독자고민상담』 『희망인생안내』란에는 성과 사랑을 고민하는 독자의 편지에 『희망』의 편집진들이 답변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성모랄에 대한 각성을 통해 현모와 현처만이 희망적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여기에는 전통적 성의식에 따른 젠더간의 불평등적 위계구조와 가부장제의 복원을 위한 여성의 희생적 삶의 아름다움을 부각한다. 이러한 사회적 담론들은 낭만적 사랑을 서사로 한 장편연재소설들에 재현된다.

신문연재소설에서 현실의 담론 내용을 재현하는 서사과정에서 재구성, 재의미화한 주제와 ‘성과 사랑, 여성’의 담론, 『독자고민상담』, 『희망인생안내』등에서 『희망』의 편집진들에 의해 강요된 목소리가 상호 연동

54) 52년 9월, 『백만인의 무료 법률실 혼인전의 정조』, 54년 4월, 『논설/논단, 여성은 남성화되는가. 지적인 에치케트와 어긋나는 현대여성의 언동과 생태』, 54년 6월, 『현대 청년남녀는 이리하여 타락된다』, 54년 10월, 『사치와 허영을 박멸하자』, 54년 11월, 『여사기사의 행장가-전쟁이 낳은 허영의 과실』, 55년 10월, 『사회루포: 신문 인생문답란에 나타난 변민-현대인의 연애, 정욕, 결혼관』, 57년 12월, 『순결을 짓밟힌 처녀의 수기』 등

55) 54년 6월, 『유한마담들의 이직업 전모해부』, 55년 3월, 『특별기고, 전후파란 무엇인가』, 55년 5월, 『법창야화, 나라에서 외치는 호곡 윤락녀와의 문답』, 56년 2월, 『사창녀 특집: 오만 창부는 어디로?』, 56년 4월, 『봄과 여성범죄의 실태: 가정을 버리는 중년부인, 그들의 비밀은 지켜질 것인가』, 56년 12월, 『홍등가 청등가의 서러움, 어느 기생의 눈물의 고백』, 57년 12월, 『코리아의 이방지대 양공주가』, 『특집: 세계각국의 청등 홍등가 답사가』 등

56) 57년 2월, 『특집: 연애, 결혼, 가정문제』, 57년 9월, 『특집: 행복한 부부생활 설계』, 57년 10월, 『특집: 결혼씨즌과 신혼부부』

된 부분을 몇 가지로 추출할 수 있다.⁵⁷⁾

『독자고민상담』, 『희망인생안내』등에서 부모의 반대에 부딪친 남녀 사랑의 해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낭만적 사랑을 강조한다. 근대적 가정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결속에 의한 사랑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자유연애를 강조한다. 〈길〉이라는 작품에서는 남성주인공인 연수의 끝없는 성적방탕이 가족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비극성을 다루고 있다. 연수가 성적으로 방탕하게 된 것은 부모의 극심한 반대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은례와의 결혼을 이루지 못했던 데 있다. 연수는 부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민숙과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첫사랑을 잊지 못한 연수는 은례와 닮은 명숙과 간통을 하게 되고 임신까지 시킨다, 결국 명숙을 질투한 처 민숙은 남편인 연수와 간통한 여인 명숙을 살해하게 되고 연수는 은례의 환영 때문에 미쳐버린다. 이들의 비극성은 연수 부모의 회한적 장면을 통해 드러난다. 연수 어머니는 아들 연수가 원했던 여성 심은례와의 결혼을 인정해주지 않아 빚어진 파탄으로 간주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은례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자살한 장면, 유부남과 간통한 여성인물 명숙이 불륜의 씨앗인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살해된 장면이다. 여성이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혼전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성인물은 결국 낭만적 사랑의 완결체인 '희망'적인 가정으로 귀환할 수 없고 처벌된다. 담론을 통해 강요되는 여성정조, 여성의 혼전순결, 육체적·정신적 순결은 낭만적 사랑

57) 장편연재소설에서 낭만적 사랑을 주서사로 한 작품과 성과 사랑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인 '애정소설, 순정소설, 순애소설, 애욕소설, 비련소설'을 『월간희망』이 지속적으로 다룬 '성과 사랑, 여성'의 담론과 연계하여 '희망'적 삶의 재건을 위한 젠더적 측면에서의 의미규명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본 논의에서는 지면상 장편소설의 간단한 줄거리 중심으로 논거를 삼고자 한다.

을 다룬 연재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전후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주범은 바로 성적방탕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도덕적 해이로 성적 문란의 주체인 미망인의 문제를 다룬 작품 〈어찌하오리까?〉에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대의적인 일을 수행하는 남성 인물을 배신하는 여성의 비극성을 그리고 있다. 〈어찌하오리까?〉는 미망인인 경애가 납치된 남편을 배신하고 친구, 이창렬과 방탕한 성적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주서사이다. 돈을 얻기 위해 친구의 첩으로 살게 되고, 욕망을 참지 못해 이창렬과 성적 쾌락에 빠진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삼팔선을 넘어 살아 돌아온 남편 양훈을 향한 미안함에 미망인인 경애는 불온의 씨앗인 아이와 함께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한다. 경애는 “자기의 죄있는 몸을 가루가 되게 하는 것이 시원하고 하느님께 죄사함을 입을 것 같습니다.”라는 마지막 유서를 남긴다. ‘하느님’이라는 절대자의 처벌로 이어지는 절대성을 부여함으로써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정당성을 주창한다.

이처럼, 불평등한 젠더적 위계구조는 성적으로 타락한 남녀의 문제를 다룬 〈월야의 창〉에서 잘 드러난다.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보여준 황정임은 처벌받고, 결혼할 정인을 두고도 방탕한 성을 즐긴 남성인물 강선하는 순결한 정인인 전경심의 이해와 용서에 의해 행복을 되찾는다. 사랑하는 심재곤과의 결혼을 반대한 부모님을 거역하고 심재곤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황정임은 심재곤이 다른 정인 전경심이 있음을 알게 된다. 황정임은 배신감에 강선하가 자신의 친구인 전경심의 애인임을 앞에도 불구하고 강선하를 자신의 애인으로 만들기 위해 몸까지 제공한다. 그럴수록 점차 멀어지는 강선하의 배신감에 전경수와 성적쾌락을 즐긴다. 이처럼 타락하는 황정임의 방탕한 행동을 지켜 본 강선하는 “여자에게 있어서 정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임을 이제야 절실하게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다.”며 한탄적으로 자조한다. 더 나아가, 황정임의 불륜적 행위는 서술자인지 남성화자인지 구별되지 않는 강압적인 어조로 정조를 쉽게 제공한 정임의 행위는 경멸만 사게 되었으며 “그런 까닭으로 해서 여자들은 정조를 지켜야한다고 옛날부터 일러오는지도 모른다”며 순결을 강조한 전통적인 정숙한 여인상을 다시금 호명한다. 결국, 황정임은 육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정조규범을 지켜내지 못한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반성하며 강선하와 관계맺어 생긴 불온한 아이를 스스로 제거하는 수술을 함으로써 자기처벌을 스스로 강행한다. 이처럼, 성적 욕망을 행사한 남성의 경우는 용서라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성을 재단하는 정조의 심판자로 명명된다.

성적으로 방탕했던 남성이지만 그 남성을 위해 인내와 지고지순 순결한 사랑을 지킨 한보옥은 강선하에 의해 ‘자기를 지킬 줄 아는 눈부신 여자’로 명명됨으로써 희망적 결혼으로 귀결되는 결말을 제시한다. 이는 낭만적 사랑을 완성으로 이끌 상호신뢰는 여성의 정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버틀러가 말한 “실패한 상호성의 구조”로 가부장제의 남성 경제 구조 안에⁵⁸⁾ 들어서고 있음을 예고한다. 불평등한 젠더적 위계구조 하에 이뤄진 낭만적 사랑은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성을 향해 가혹한 처벌을 감행한다. 더 나아가 현처의 지성적 행위를 강조한다.

돌아온 탕아인 남편을 인내하며 받아들이는 현처의 아름다움은 『월간희망』의 담론 안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다. 특히 57년 결혼, 가정, 부부관계를 다룬 특집란에는 양처, 현모가 지닐 덕 즉 인내와 희생의 미덕을 지닌 내적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의 지적 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월간희망』이 이상적으로 제시한 여성상을 가장 잘 형상화한 작품

58) 주디스 버틀러, 『젠더트러블』,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2008, 170쪽.

은 〈비가온다〉이다. 여기에는 지고지순 순결한 사랑을 지킨 한보옥을 넘어서서 헌신적인 모성적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이 작품은 정인이었던 고은미를 배반하고 유한마담인 황일심의 유혹, 물욕에 빠져 방탕한 삶을 누리다 버려져 그 충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되어 다리조차 절단한 사공명을 용서하며 그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여성인물 고은미를 그리고 있다. 고은미의 희생적 아름다움은 은미 친오빠의 설득에 의해 이뤄진다. 은미의 친오빠는 “이 나라의 젊은 여자가 모두 고난의 길이 싫다고 의리나 인정을 헌신짝 같이 내버리고 부유하고 평탄한 길만을 찾아간다면 여성의 정조는 어디서 찾아보며 여인의 전통이나 아름다운 인습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라고 한탄한다. 이처럼 ‘인정’ ‘정조’ ‘전통’ ‘아름다운인습’은 여성들에게만 강요되는 것들이었다. 그는 “고난의 생활 속에서 참된 그 무엇을 찾아내 보자”고 누이를 설득한다. 간호사인 고은미는 “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기 위해 사공명을 보살피며 고생을 더해보겠다”고 말한다. 만신창이었던 사공명은 은미의 정성어린 간호를 통해 서서히 건강을 회복한다. 어느 날, 은미는 병실 밖에서 거지가 자기 아내의 몸의 벌레를 잡아 주는 장면에서 감동하며 “이 사회에서 압박받고 쫓겨나고 짓밟힌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거지에게서 본다며 사공명에게 사랑을 느낀다. 탕아로 살다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돌아온 남자를 인내와 희생으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성성을 지닌 여성의 아름다움이 바로 현재 여성이 지켜낼 정조관이자 지켜내야 할 인정이며 의리적 행위인 것이다. 이런 여성만이 가부장제의 자장 안에 희망적으로 귀환 정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대한 모성의 정신적 기쁨을 강조하며, 모성성은 여성에게 사랑과 헌신을 강요하는 가족의 구성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통과의례여야 했다. 혼탁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식적 각성의 중심으로 현모양처라는 전

통적 이념은 은미오빠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금 호명된다. 이처럼 『희망』은 여성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가부장적 이념 아래 복속시킴으로써 전통적 젠더 위계를 복원한다.

성적 유린이 생활의 수단이 된 욕망지향적인 여성들인 아프레겔, 유한마담, 양공주, 윤락녀, 기생들은 결혼을 통한 가정으로 결코 귀환되지 못할 거세될 인물들로 그려진다. <광활한 천지>는 양공주 차래의 비극적 삶을 그리고 있다. 전쟁에 나가 연락조차 두절된 애인 배곤을 배신한 차래는 미국인인 캐리조오지를 사랑한다. 그녀는 미국인인 그가 자신에게 줄 물질적 안락함과 ‘미국’이라는 세련된 문화가 자신을 희망적인 삶으로 이끌거라는 욕망적 삶을 지켜내기 위해 그와 동거에 들어간다. 그러나, 부를 약속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캐리조오지의 배신과 차래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순결한 남성 배곤을 만난 그녀는 자신의 순결치 못한 정조관을 비판하여 불온한 아이와 함께 자살한다. 성적유린으로 물욕을 채운 여성들은 사회질서 안으로 영원히 귀속되지 못하고 거세됨을 보여준다.

이상 『월간희망』의 장편연재소설에서 형상화한 성과 사랑의 모티프는 1950년대 인기대중지였던 연재장편소설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아노미상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미국자유정신의 유입이고 그로 인한 여성의 성적 욕망의 분출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간희망』뿐만 아니라 당대 인기대중잡지인 『여원』 『명랑』 등의 잡지에서도 박인수 사건, 유한마담, 전후파, 아프레겔, 양공주 등의 담론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사내용이 어긋난 욕망의 주문제를 여성들의 성적 욕망으로 예각화함으로써 결국 타락한 여성들이 비극적 파탄의 주요인임을 강조하는 한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이러한 소재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잡지가 대중의 흥미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소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중소설에서는 단골메뉴처럼 쓰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1950년대 상황을 고려해보는다면 이는 단순히 대중의 관심 유인책만으로 작동되기 보다는 개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은 소설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문란했고, 아노미상태였으며, 그 시대를 분열적으로 견뎌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미국의 자유정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실존의 고민으로 다가올 때 이 상황을 견디기 위한 인간들은 분열적일 수밖에 없으며,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소진할 때까지 분출해야만 했던 것이다.

『명랑』의 사랑은 연애의 판타지를 수습하고 결혼제도로 정착시켜 가족 로망스를 실현하고 가족을 재건하는 결말구조를 통해서 명랑성을 유지한다.⁵⁹⁾ 여성담론을 주도했던 잡지들인 『여원』 『주부생활』 또한 연애의 자유에 대한 관념을 결혼과 굳게 결부시키고 성, 사랑, 결혼이 하나의 관계 안에 행복하게 일치하는 낭만적 사랑을 이상화함으로써 여성을 가정적 존재로 정체화하고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재확립하고자 했다.⁶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랑』이나 『여원』에는 사랑의 자유로운 선택에 내재된 불온한 충동에 의한 여성주체의 분열이나 균열지점 또한 적극적으로 현현한다.

그러나, 『월간희망』은 낭만적 사랑이 순결성을 견지한 채 ‘희망’적 가정, ‘희망’적 사회 재건을 계도하는 것에 보다 더 집중하고 있다. 이는 작품마다 ‘희망’을 깨는 여성욕망의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통과이레

59) 김지영, 『통속오락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 사랑의 인식구조-1950년대 수록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159-207쪽.

60) 김지영,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의 연재소설 연구-연애 담론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347-384쪽.

처럼 작동되는 차별과정이나 ‘희망’을 깨는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여성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과도한 서술자의 개입을 보여준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장편연재를 시작할 때 이 작품은 어떤 주제로 쓸 것이라는 작가의 설명 안에 새롭게 재건된 사회의 지형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도 추정해볼 수 있다. <청색회관>을 살펴보면, 1회 시작 전에 작가의 말을 담는다. “6.25이후 모든 면으로 보아 우리들의 인생관·사회관·윤리관이 자신들도 의식 못하리 만치 달라졌다는 점을 이 작품 속에서 취급해 보겠다. “사랑한다는 일마저도 계산기로 따지는 인간상을 그리라는 것이 나의 원이기도 하며 이러한 뼈대를 바탕으로 재미 있어야하느니 보다는 독자에게 어느 정도로 의도한 바에 충실할 수 있느냐는 점이 두려웁게 생각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⁶¹⁾ 이는 독자에게 선정적인 재미와 흥미에만 멈추기 보다는 잘못된 시대,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중을 향한 지침 또한 실망스럽지 않게 전달하겠다는 작가의 계도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해석된다. 이처럼 작가는 『희망』이 재건하고자 하는 의도적 목적성을 담고 연재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박계주의<지옥의 시>또한 ‘현재의 혼란한 사회를 ‘지옥’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혼란된 사회에 비애와 절망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옥을 구제할 ‘꽃’ ‘시’ ‘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곧 『희망』이 바라본 현실은 ‘지옥’이며 이러한 혼란을 재건할 ‘희망’적 삶의 모습이 ‘꽃’ ‘시’ ‘별’과 같은 희망인 것이다.

1960년대 재건될 근대국가의 핵가족의 모습은 불평등한 성별 위계에 낭만적인 사랑의 환상으로 이뤄질 가족의 모습이다. 그 안에서 여성의 성은 또 다른 방식으로 도구화·대상화를 가속화하게 된다. 그리고 여성들의 자아실현은 사적 영역인 낭만적 사랑의 자장 안에서만이 이뤄

61) 박연희, <청색회관>, 『월간희망』, 1953.7, 108쪽.

질 수 있는 근대 핵가족의 모습의 시발점임을 드러낸다. 재클린 살스비의 언급처럼 여성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자유로운 자아를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낭만적 사랑에만 더욱더 집중⁶²⁾하게 될 거라는 것이다. 즉 남성 중심적이며 가부장제로의 귀환을 통한 체제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월간희망』잡지는 이처럼 낭만적 사랑을 최후의 보루로서 가족을 재구성할 근대화 프로젝트의 시발점으로 하는데 동참한다. 순결 이데올로기라는 틀로 여성을 단죄하고 모성의 미덕을 강조함으로써, 편향적인 젠더위계화를 규정하면서 가부장제의 초 남성적인 국가 재건이 바로 『월간희망』의 ‘희망’ 문화 정치적인 작동방식이다.

3. 결론

1950년대는 한 잡지사가 여러 개의 잡지를 발간할 정도로 잡지매체의 시장장악력은 지대했다. 그런 만큼 혼란한 사회 안에서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잡지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오히려 신문매체를 능가할 정도였다. 전쟁으로 아노미 상태가 된 흔들리는 국가 기강을 ‘희망’으로 재건하기 위한 문화정책으로 ‘문학’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예면의 배치양상을 살펴보았다.

문예면의 배치양상은 ‘문학의 대중화’전략에 따라 ‘국내외 작가소개란’에서는 작가가 범인과 같이 ‘고난’을 지닌 인물이며 그것을 극복해낸 ‘희망’을 표상하는 인물로 소개한다. ‘단편소설란’에서는 무명작가 작품의 지면할애, 장르의 다양한 세분화, 문학창작의 방법, 형식의 다양화를 통해 ‘희망’이라는 계도적 표상을 다각적으로 담아내어 ‘희망’문화정치를

62) 재클린 살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국 옮김, 민음사, 1985, 111쪽.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대중의 문화화’ 전략에 따라 ‘독자문예란’은 대중이 ‘희망’적 표상을 담는 창작물을 창조하는 문화인으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 ‘장편연재소설란’은 낭만적 사랑을 주서사로 『월간희망』이 담론화 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재현하여 현실과 허구가 혼재된 채 그려지고 있다. 이는 비록 허구로 형상화되었지만 현실적 문제임을 상기시킴으로써 당대 대중의 욕망을 재생산, 재의미화함으로써 대중을 향한 계몽적 의도가 보다 더 부각된다. 지성적 교양의 주체로서 여성의 모랄을 제시함으로써 담론이 지향했던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가치를 호명함으로써 젠더 위계를 정착시키려는 의도적 목적성이 부각된다. 여기에는 전통 유교적 담론과 정절 이데올로기로 여성들의 ‘위험한 성’을 통제하는 방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1960년대 국가재건 프로젝트 하에 핵가족화 되는 과정에서의 젠더정치학과도 연동되는 지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월간희망』의 문예면을 통해 ‘희망’을 재건하기 위한 문화정치로 규명해볼 수 있다.

『월간희망』은 1950년대 전란의 복구를 ‘희망’으로 재건하기 위한 문화정치로 ‘문예란’을 통해 “문학의 대중화” “대중의 문화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어 ‘대중교양종합지’로서 자리매김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월간희망』, 1952.6-1958.6.

2. 논문과 단행본

김지영, 「통속오락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 사랑의 인식구조-1950년대 수록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8, 민족어문학회, 2013, 159-207쪽.

_____,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의 연재소설 연구-연애 담론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347-384쪽.

염 철, 「『희망』에 나타난 한국전쟁기 한국인의 감성 양상: ‘독자문예란’에 수록된 시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3, 중앙어문학회, 2015, 83-109쪽.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11-570쪽.

_____, 「전후 문학 장의 재편과 잡지 『문학예술』-전반기(1952.8~1956.3)의 매체전략과 문학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 재생산 제도의 구조』, 깊은샘, 2007.

이선미, 「명랑소설의 장르인식, ‘오락’과 ‘(미국)문명’의 접점-1950년대 중/후반 『아리랑』의 명랑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55-93쪽.

이은선, 「전쟁기 『희망』과 조흔파의 “명랑소설”연구」, 『어문론총』 6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295-321쪽.

재클린 살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국 옮김, 민음사, 1985.

전지니,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연구」, 『어문론총』 6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217-268쪽.

_____, 「『희망』 소재 문예면에 나타난 전쟁기의 윤리: 김광주의 『동방이 밝아온다』(1951)와 방인근의 『유엔공주님』(1952)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103-130쪽.

조윤아, 「인권교육의 텍스트 확장을 위한 연구-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47,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115-136쪽.

주디스 버틀러, 『젠더트러블』,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2008.

한기형, 「근대문학과 근대문화제도, 그 상관성에 대한 시론적 탐색」, 『상허학보』 19집, 상허학회, 2007, 49-77쪽.

Abstract

The Establishment Methods of Representation of "Hope" and
Cultural Politics in the Literature Section of *Huimang(Hope)*
- With a focus on the literature section of
the monthly *Huimang(Hope)* in the 1950s

Im, Eun-Hee(Hanyang University)

Recognizing that the magazine *Huimang(Hope)*(1951-1966) did not slow down its communication with public readers by devoting a lot of space to literature and thus continuing to reinforce its literature sec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ways that its directing points were embodied through its "literature section."

A look at the layout patterns of the literature section shows that the editors intended to guide the public consistently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hope." When they introduced writers, they focused on depicting them as individuals that represented "hope" that overcame hardship instead of placing them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They also maintained their communication with the readers actively in the "literature section for the readers" to turn the public into a culture and build "hope." The "long serial novels" presented romantic love as their major narrative and found a major factor of conflict in the free expression of characters' desire. The control method of punishment worked as a rite of passage at the point of stitching up the conflicts rather than popularizing such stimulating materials. Inherent in the method was the way of controlling women's "dangerous sex" with the traditional Confucian discourse and the chastity ideology. It is linked to gender politics in the process of nuclear families under the national reconstruction project in the 1960s. It can be understood as the cultural politics of "hope" through the long serial novels in *Huimang(Hope)*.

Hope established itself as a "general magazine for people's refinement" that led the "popularization of literature" and "enculturation of the public" to restore and reconstruct the nation out of the war with "hope" in the 1950s.

130 대중서사연구 제23권 3호

(Key Words: the magazine *Huimang(Hope)*, popularization of literature, enculturation of the public, general magazine for people's refinement, guidance, romantic love, "hopeful" return to patriarchy, cultural politics)

논문투고일 : 2017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8월 4일

수정완료일 : 2017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14일